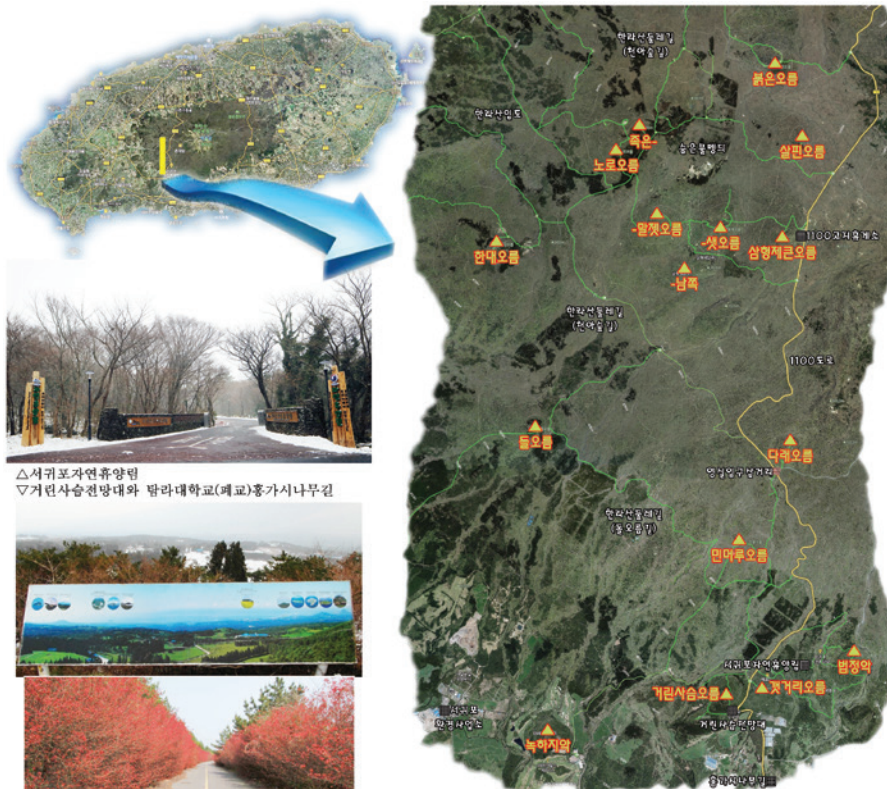


방기인(放送技術人)의 제주탐방 - 16

한라산 서부 천고지를 지키는 오름들

한라산 중턱10부능선에서 차광숲 꽃자왈을 깔고 앉아 살며시 고개 들며 결코 한라산에 도전하지 않는 외로운 오름들이 완만한 능선을 그리며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이는 오름들을 찾아간다. 철 따라 화려한 옷맵시를 자랑하는 한라산 둘레길을 따라 자신을 통해서만 서로를 비춰주고 전망을 보여주는 노로오름, 삼형제오름, 돌오름과 역사의 현장을 지켜주는 붉은오름과 살판오름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에 이름이 올려지는 바람에 외톨이가 돼버린 다래오름(중문), 서귀포자연휴양림 덕에 건강 탐방로를 가지며 전망대에서 거침없이 서귀포 해안으로 향하는 한라산의 하늘선을 보여주는 법정악과 있는 듯 없는 듯 갯거리오름을 탐방한다. 서귀포 포구의 아름다운 해안을 보여주고자 애쓰는 거린사슴오름과 자연보호와 사람과 자연의 소통(기지국)을 위해 제 역할에 열중한 민머루오름 마저 탐방하고 나면 오름과 한라산 둘레길이 숨바꼭질하면서 긴 여운을 남긴다.



붉은오름

1100고지 전망대에서 보폭을 재가면서(2.6km) 붉은오름 탐방로에서 서쪽으로 뚝한 와인잔 모양의 탐방길을 따라가는 붉은오름 동쪽사면길(1km)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허리까지 차오른 조릿대와 광령천지류는 발길을 막고 하늘을 가린 잡목은 눈길과 방향감을 흐트리기 때문이다. 마음과 몸이 분리되면서 하늘 아래 어디에 있다가 돌아오기를 두세 번, 다음날도 그렇게 하다 위치표시기의 도움을 받고서야 광령천을 따라 오는 탐방로와 마주쳤다. 우여곡절 끝에 서쪽 자락 광령천을 건너 잡목, 송림 사면을 통하여 정상에 올랐다. 아! 붉은오름. 왜 그토록 꼭꼭 숨어서 애를 태웠는지 한순간에 알려주고 있다. 등성이 탐방로에서 만나는 제주의 자연은 보통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때맞춰 한라산 서벽에 걸려있던 구름도 서서히 한 꺼풀씩 벗으면서 북에서 남으로 보여주는 전경은 가히 일품이다. 어승생악을 시작으로 삼형제오름, 노로오름들이 시선을 사로잡았고, 국립공원의 푸르름이 한눈 가득히 넘쳐흐르는 줄도 모르고 담고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 파노라마 전경에 한없이 취했다. 산등성이를 따라 숲한 오르미들의 발길이 조릿대 숲길을 뚜렷이 하면서 서북향 분화구 능선을 따라가는 재미도 쏠쏠하다. 분화구 자락 삼거리에서 다시 반대편 분화구 능선 잡나무숲을 따라 오르면 8부 능선부터 또 조릿대 숲길이 반긴다? 서너 바퀴 등성과와 분화구 능선을 돌면서 체력도 다지고 오름이 보여주는 신록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어 붉은오름 지키미가 되어 세월과 역사 속에 살아있는 삼별초군들의 혼이라도 위로해주는 제사장이 되고 싶다. 굴바리에서 조릿대길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천아오름, 한라산 둘레길 천아숲길®과 통하는 임도사거리의 들머리요, 등성이에서 동쪽 사면으로 내려가면 동쪽 1100도로 들머리와 만나고, 남쪽 사면으로 내려가 광

령천 서쪽으로 가면 살핀오름, 노로오름 들머릿길과 만난다.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한라산 둘레길과 1·2차 탐방의 추억을 새기면서 노로오름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였다.

높이 1061m, 비고 136m, 북서향 말굽형 분화구를 가진 산체로 과거 삼별초군이 여몽 연합군과 최후의 항쟁을 하다가 삼별초군 김통정 장군과 부하들이 자결한 오름으로써 이 당시 군사들이 흘린 피가 오름 일대를 붉게 물들었다고 하여 붉은오름이라 부른다. 그 어떤 수사도 필요 없는 오직 찾는 이에게만 차고 넘치도록 풍요롭고 넉넉한 오름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오름이다.


두박이 1100도로 천백고지휴게소(240번)→탐방소 2.6km

살핀오름

삼형제오름과 붉은오름 가운데서 나지막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숨어서 살피고 있는 오름이 살핀오름이다. 1100도로 탐방로를 통하여 울창한 잡목 작지왓을 따라가면서 살피면 오른쪽에서 만날 수 있다. 울창한 한라산 숲이 1100도로로 동강은 났지만 인적도 없고 한라산 까마귀들조차도 찾지 않는 외로운 오름에 생뿔뿔하게 삼나무군락이 자락을 지키며 노루들의 밀회 장소를 제공하고 탐방길을 안내하며 가뭇에 콩 나듯 찾아오는 오르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곳이 살핀오름이다. 무릎까지 차오르며 바스락거리는 조릿대 숲길을 오르면 손바닥만한 풀밭도 없지만 살피기에 딱 알맞은 모습들을 한 기암기수들이 지키는 정상에 오른다. 살핀오름과 관련한 역사의 현장에서 그때를 되새기며 외로운 감격의 순간을 여러 장 남긴다. 삼별초군 김통정 장군부대가 향파두리가 함락된 후 최후의 보루로 선택한 붉은오름에서 최후 항전을 위한 진지를 구축하고 척후병들이 정황을 살폈다는 살핀오름이 아닌가. 정상에는 여러 형상이 있다. 용암을 끌어안은 잡목과 기생하는 이끼류와 양치식물은 장군의 영혼이 머무는 듯 장군석을 중심으로 몇몇 용암들은 장군석과 기목을 호위하듯 마주하고 있다. 옆 빌레위에는 역사의 현장이 아닌 풍파세월을 말해주는 쓰러진 거목이 살핀오름의 과거와 현재를 말해주며 살피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상을 중심으로 탐방객의 흔적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다. 오르락내리락 감동을 하며 발 가는 대로 간다. 남쪽 자락 삼나무 밑에서 사랑놀이하던 노루들은 나를 원망하며 괴성을 지르며 다음을 기억하면서 시야에서 사라졌다. 다시 조릿대 숲이 안내하는 탐방로를 따라 어디론가 가면 한라산의 미아가 되었다가 둘레길과 임도를 만나면서 길 따라 나선



노로오름에서 보는 어승생악과 붉은오름



삼별초군의 영혼이 깃들은 살핀오름 정상

다. 표고 1076.3m 비고 76m, 산체의 동쪽으로 굴부리의 흔적이 있다
고는 하지만 식별이 어려운 상태로 원추형화산체다.

노로오름

노로오름은 한라산 임도나 둘레길 천아숲길을 걸으면서 곳자왈이 베풀어 주는 사철 정취를 오감으로 느끼도록 하고, 한라산 능선과 해안선이 맞닿으면서 서남부전망을 산수화·풍경화폭에 담아준다. 오늘은 천백도로 한라산전망대를 들머리로 하여 붉은오름, 살핀오름과 연계하여 노로오름의 참모습을 본다. 천백도에서 조릿대 숲을 들어서서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외길 오솔길은 두서 개의 건천을 건너고 이리저리 꼬불꼬불 돌고 돌아 보면 방향감각도 잃고 덜컥 겁도 나면서 오싹해진다. 셋길로 빠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한라산 둘레길을 만난다. 천아숲길⑩와 한라산 둘레길 위치도판이 맞아주며 탐방꾼을 안심시킨다. 작은노로오름은 정해진 탐방로는 없지만 동남자락과 접한 임도와 한라산 둘레길 삼나무숲을 통해서 단숨에 오를 수 있다.

길을 막기도 열기도 하는 삼나무의 심술을 벗어나면 잡목과 어울리는 용암이 키만큼 높이를 더하며 작은노로오름(표고 1,019.2m, 비고 34m, 원형분화구)이라 알린다. 발뒤꿈치를 들어도 어떤 전망도 보여주지 않는 무심한 작은노로오름이다. 들렀다는 인사만 간단히 하고 다시 둘레길을 따라가다 조금 트인 삼나무숲을 치고 정상으로 향했다. 물론 탐방로는 아니다. 삼나무숲이 끝나자 정말 심한 가시덤불이 길을 막는다. 천신만고 끝에 오른 정상은 옛날의 흥물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사각철탑(자연보호표지판)을 세웠던 기초만이 가운데 봉오리라 알리고 있다. 철탑터가 전망을 띄워주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동쪽으로 얼굴을 내민 한라산 서벽을 중심으로 좌우등성이 품은 오름들을 보여준다. 이리저리 더 등성이를 둘러보며 길을 찾아보지만 뚜렷한 탐방로는 없다. 흔적을 찾아가면 성못길이고 다시 돌아 나와 내려가면 삼나무숲을 만나고 자락에 한라산 둘레길 천아숲길⑩꺾말이 이 심전심으로 안내하는 삼나무숲 등산길을 따라 오른다.

7부 능선에서 갈림길이 나오지만 9부 능선에서 다시 만난다. 땅 냄새, 땀 냄새 맡으며 신록의 향기를 품고 한걸음한걸음 힘든 걸음을 옮기면 하늘을 가린 잡나무숲이 끝나고 눈이 부시도록 새파란 하늘이 활짝 쏟아져 내리며 가슴에 안긴다. 노로오름 주봉이다. 호흡을 가다듬을 새도 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눈동자는 무한케도를 돌고 있다. 삼각점과 함께 정상을 알리며 제주 서남 방향을 열어 찬란한 한라산과 용머리해안을 비롯하여 오름군락과 대자연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로오름은 최고의 전망대다. 어승생악 능선을 따라 한라산을 넘고 삼형제오름을 지나 한발 건너면 군산을 통해 산방산을 따라 바다로 이어지며 마라도까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다. 마라도에서 이어서 도로 향하는 났을 되돌려 삼형제 말젓오름에 고정시키면서 정상으로 돌아왔다. 붉은오름이 보여줬던 것처럼 노로오름도 붉은오름과 살핀오름을 함께 보여주면서 발자취를 따라가 보게 한다. 삼각표석에 걸터앉아 유월의 햇살을 비스듬히 받으며 광량을 조절하기 위해 가늘게 눈을 뜨고 스크린을 펼쳐 놓으면 노로오름의 멋진 풍경이 요지경처럼 스쳐 지나간다. 세 번 아니 다섯 번이라도 노로오름에 올라야 하는 이유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그리고 마음 내킬 때 올 것이다. 이제 노로오름의 품을 떠나야 한다. 북쪽으로 가면 분화구를 거쳐 임도를 따라 안천이, 바리메오름으로 가는 들머리요, 남쪽으로 가면 삼나무숲을 거쳐 둘레길 천아숲길⑩꺾말 근처에서 만난다. 오늘 계획대로⑩꺾말에서 정상에 올라⑩꺾말로 하산하였다. 한걸 경쾌해진 걸음은 탐방로를 씬 없이 단숨에 갈아먹고 추억의 길을 따라 천백도로에 안착한다.

한라산중턱 10부 능선에 위치하여 한대오름과 함께 일대를 통하여 오름과 분화구를 확실하게 만날 수 있다. 일대에 노로[노루]가 많아 노로오름이라 하며 한자로 獐岳장악으로 표기한다. 표고 1070m, 비고 105m로 큰·작은노로오름으로 부르고 있으나 작은 능선 봉우리가 이어지면서 1개의 원형분화구와 5개의 원추형 화구로 이뤄진 복합형 독립화산체다. 오름 전사면은 삼나무와 자연림이 울창한 숲을 이루며 표고버섯재배지가 있다.



노로오름, 붉은오름에서 보기



두박이 1100도로 천백고지휴게소(240번) → 탐방소 4.3km

삼형제오름 큰, 셋, 말젓오름

봄이 한창 무르익어가는 춘삼월 버스정류장에서 마음을 바꿔가면서까지 1100고지를 대표하는 삼형제오름 탐방 나섰다. 화창한 봄 날씨도 같이 했다. 포털지도를 이용하는 탐방인데 예상대로 쉽지 않은 탐방이다. 삼형제큰오름-셋오름-말젓오름-셋오름남쪽 1, 2봉을 거쳐 1100도로로 나오는 탐방길인데, 길을 잊지 못해 말젓오름에서 한라산 둘레길 천아숲길@을 빠져나와 보림농장을 거쳐 영실입구에서 마무리는 긴 탐방길이 되었다(탐방거리 12km).

산악인 고상돈상 앞에서 기념촬영 후 세오름중계소 통제구역을 모르는 채 포장도로를 따라 굽어 오른다. 중계소를 지나 기지국 앞마당에 서면 여기가 삼형제 중 제일 큰형 삼형제큰오름(표고 1,142.5m, 비고 118m, 서향 말굽형화구) 정상이다. 워낙 높은 곳에서 등정한 것도 있지만 평평

한 초원이라 평지로 느낀다. 동쪽으로 한라산과 품에 안긴 장, 왕, 볼레, 어스렁오름과 북쪽에 붉은오름, 남쪽에 다래오름(중문) 그리고 바로 앞에는 작은, 막내형제오름이 손짓한다. 되돌아 나와 묘지에서 삼형제셋오름으로 향하는 길은 경사 급한 산길이다. 잡목 낙엽들이 맨살을 덮긴 했으나 탐방로의 흔적은 찾을 수 있어 다행이다. 가끔 길을 잃었으나 감각적으로 오르미들의 표식·흔적을 따라가는 것을 보니 오름탐방에도 이력이 붙었나 보다. 계곡은 역시나 비바람에 씻기고 할퀴어 흔적 찾기는 쉽지 않다.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다 형제 발길이 닿는 곳에서 동생 셋오름을 찾아간다.

둘째인 셋오름(표고 1,112.8m, 비고 123m, 서향 말굽형화구)으로 향한다. 앙상한 잡목 사이사이를 이어가는 등산길이다. 신록의 여름에는 아무래도 초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드문 비자나무와 소나무가 몇 그루 있지만 표식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등산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공제선에서 분화구 능선과 마주쳤다. 북쪽 등성으로 가는 분화구 능선 길은 온통 조릿대 숲으로 발이 감 잡은 대로 가야 한다. 어쩌다 분화구 안으로 들어가면 조릿대를 밀쳐낸 습지와 송이가 원래 모습을 지키려



삼형제 큰, 셋, 말젓오름

애쓰고 있다. 이리저리 쏘아대면서 분화구 탐방의 뜻을 새겼다. 이 깊은 산중에 조릿대를 또렷이 구분 짓는 산담은 사손들이 지키는 묘지다. 좌우 동자석과 석물까지는 잘 관리되어 있다. 대단한 정성이다. 조릿대와 잡목숲을 헤치며 발길 가는 대로 가다 보면 탐방로를 벗어났다 이어졌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남쪽 봉우리에 닿는다. 공원보호구역 표시석이 정상을 알린다. 오르미들의 쉼터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서남 동쪽으로 펼쳐지는 전경은 초점을 앞·뒤로 움직일 때마다 그 보람을 느끼게 한다. 북쪽 잡나무 숲사이로 어른거리는 노로·붉은·살핀오름도 이웃이라고 눈짓한다. 만남을 기대하며 서쪽 사면으로 난 좁은 등산길·허리까지 차는 조릿대와 잡나무숲, 덩굴을 헤치고 내려가면 삼형제말젯오름이 딱하니 버티는 계곡이다. 머릿속에 입력된 돌아가야 할 길인 삼형제셋오름 남쪽2자락으로 가는 갈림길을 찾느라 한동안 계곡에서 헤맸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어 결국 오는 길은 한라산 둘레길 천아숲길을 탐방해야만 했다.

그래서 삼형제오름이라 했는가? 막내 말젯오름(표고 1,075m, 비고 125m, 서향 말굽형화구) 산체도 구성도 탐방로로 형들과 꼭 빼닮았다. 조릿대, 잡나무, 드문드문 해송과 비자나무를 헤치고 동쪽 사면을 타고 오르면 북남봉우리를 이어주는 분화구 능선이다. 잡나무를 가득 채운 분화구를 걸논질하면서 능선까지 세력을 넓힌 이들과 조릿대를 헤치며 탐방길을 따르고 노로·붉은오름을 보며 북쪽 등성이에 가면 역시나 노로·붉은오름가는 탐방로가 이어진다. 발길을 돌려 남쪽 등성이에 오면 둘둘말아 묶은 천 리본이 정상이라 알린다. 잠깐 요기하고 전경에 취한다. 형들을 꺼안은 한라산을 정점으로 걸출한 돌오름, 한대오름, 노로오름이 전망을 풍만하게 한다. 돌아가야 하는 1100고지 휴게소는 눈앞인데 서쪽 사면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는 길은 북쪽으로 북쪽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조릿대와 잡나무숲, 건천을 지나 한참을 지나서야 삼나숲을 만났다. 길이 있음을 의미한다. 오르미의 직감이다. 한라산둘레길(천아숲길⑩/돌오름 5km, 천아수원지 5.9km)이다. 아! 어쩌다 여기까지 왔구나. 복잡한 머릿속을 단순화시켰다. 그래, 돌오름을 거쳐 영실입구로 가자. 오늘도 해매면서 고난의 삶을 지고 마음의 미련을 많이 남기면서 여기까지 왔다. 어쩌면 형제의가 좋아 말젯>셋>큰 형제순으로 조릿대 숲을 안고 있을까? 감히 조릿대 삼형제오름이라 할 것이다. 조릿대 숲도 형제의 우정도 영실입구에서 모두 내려놓았다.



두박이 1100도로 천백고지휴게소(240번) → 세오름중계소(200m)

승용차 1100도로 천백고지휴게소 주차장

돌오름

한라산 둘레길 천아숲길과 돌오름길을 탐방하게 되면 덩으로 돌오름을 탐방할 수 있다. 천아숲길 시점이면서 돌오름길 종점에 위치한 돌오름이기에 그냥 지나치기에는 언제 만날지 기약할 수가 없다. 시종점에서 임도를 산책하면(1.5km) 입구가 나온다. 정상까지 갔다 오는데 약 1.3km란다. 송이길을 사뿐히 걸어 입구에서 돌오름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삼나무로 시작한 완만한 숲길이 조릿대로 경사길을 뒤덮더니 잡목이 길을 험하게 하였다. 그렇게 등산팀의 리본을 따라 조릿대 숲을 헤치고 잡목을 비집고 정상에 갔다. 유난히도 광장나무가 많다싶더니 정상에서는 벤치 역할에 활용장소도 자청하였다. 많이 아팠구나. 미안하구나. 살며시 기대며 아픔을 달랬다. 멀리는 한라산이 가까이 있는 삼형제오름이 반겨준다. 서귀포 해안 절경과 분화구는 우거져 형클어진 잡목이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수악길 물오름과 꼭 닮은 서귀포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통신기지국이 팔백고지에서 묵직한 상투를 틀고 열기를 식히기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모습이 가련하다. 원형분화구이지만 순환할 수 없는 아쉬움을 남기고 지나온 흔적을 따라 되돌아 내려오면, 언제 길을 열었느냐는 듯이 조릿대들은 민낯을 가리며 등하산길을 숨기고, 삼나무숲도 햇볕을 독차지하며 쉬지 않고 피톤치드공장을 가동시키며 숲 향과 음이온을 바겐세일하고 있는 한라산 둘레길 기점이다. 임도와 병참도로가 번갈아 가며 내주는 송이길과 흙길, 꽃자왈 길을 걸어 나오면 가슴속 가득한 청량한 공기에 가벼운 발걸음이 탐방을 마무리한다.

돌오름(상천)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 있는 오름으로 돌이 많아 하여 돌오름이란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등성마루가 빙 둘러져 있어 돌오름이라 한다는 말도 있다. 남사면은 매우 가파르고 북사면은 비교적 완만하게 동서로 길게 누워있는 화산체로 산상에는 꽤 넓고 얇게 서쪽으로 벌어진 듯 보이는 원형분화구가 있으며 안에는



돌오름을 품은 한라산



법정악전망대에서 보는 거린사슴오름

나무와 잡풀이 우거지고 오름 각 사면으로 자연림의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해발 865.8m, 비고 71m, 원형분화구.



뚜벅이 1100도로 영실입구(240번) → 18임반입구(560m) → 보림농장(1.6km) → 탐방소(1.5km)

승용차 1100도로 18임반입구 노선

거린사슴오름, 법정악, 갯거리오름

어리목을 지나고 천백고지휴게소에서 폭설은 진면모를 드러냈다. 영실 탐방로를 통제시키고, 서귀포자연휴양림도 통제시키고, 거린사슴오름인들 왜 통제시키지 않겠나? 그렇게 하든 말든 의지의 오르미는 눈발 휘날리는 한라산 남쪽 능선을 보기 위해 오름을 오른다.

거린사슴오름 소나무와 잡나무가 수풀을 밑에 깔고 하늘을 차지하고 있는 양지바른 등산길은 삼나무와 잡나무 사이를 비집고 정상까지 이어준다. 용암 화산탄 두세 개가 정상을 알리고 동남쪽 서귀포 전경을 보여주고자 하나 눈발이 도와주지 않는다. 수시로 변화는 제주의 바람은 전경과 숨바꼭질하고 있다. 눈발에 서서 서귀포 해안을 굽어보고자 했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거린사슴전망대가 낮은 곳에서나 떠나 서귀포의 일상을 언제나 쉽게 보여주니 오늘은 눈과 함께 거린사슴오름 정상에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정상에서 분화구 등 성이를 따라 돌레길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매서운 북풍이 칼바람으로 가슴을 파고든다. 잡나무들도 돌아앉아 칼바람을 피하며 눈칼들도 날카롭게 바람 따라 날을 세우고 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눈길에 선명

한 족적을 남기며 북쪽 자락에 왔으나 예상과는 달리 낮은 계곡이 길을 잃게 하나 촉감을 세우고 방향감을 잡으면 한라산 돌레길 돌오름길 시작점에서 탐방을 마무리하고 돌레길을 탐방할 수 있다. 북쪽 자락을 빙 돌면서 애기봉으로 발길이 향한다. 열하분출탄이 군집을 이루면서 경관을 만들고 있다. 게다가 멋진 수직동굴은 땅속의 열기를 뿜어내면서 몸을 데워주고 양치식물들을 키우고 있다. 훈훈한 기운을 가슴에 품고 전망대 돌레길을 찾아가다 정상에 다시 왔다. 조금 갠 눈발은 동쪽전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구나. 좋은 사진 한 장 기억창고에 저장하고 자락돌레길을 확인하고 다시 정상을 거쳐 전망대 탐방로로 내려왔다. 정말 오늘은 거린사슴오름을 세 번이나 오르는 행운을 잡았다? 주봉을 중심으로 나누어진(折) 모습이 사슴이 달려가는 모습에 비유해서 절악折岳이라한다. 표고 742.9m, 비고 103m, 서향 말굽형굴부리.

법정악 초여름 숙이와 함께하는 휴일이다. 정초 폭설로 만나지 못했던 서귀포자연휴양림을 찾아 나섰다. 비록 자연을 흉내 내어 만들었지만 자연의 풍미가 느껴지는 입간판과 인사하고 산책길에 접어들었다. 자신의 산책길을 따라가면서 삶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름답다. 지압길 건강산책로를 따라 가볍게 법정악탐방로에 왔다.

산기슭에 법정사가 있어서 법정악이라 한다. 표고 760.1m, 비고 90m의 원추형화산체 능선을 따라 목책데크와 계단이 정상 전망대까지 이어주고 있다. 잘 정비된 산책로를 따르면 오름탐방의 그윽한 맛을 느낄 수는 없지만, 안정되고 편안함 마음에 와닿는 다양한 종류의 잡목들이 내뿜는 신선한 숲 향을 느끼고, 한걸음 두걸음, 한 계단 두 계단 오르내리는 사람들과 교우하며 가볍게 주고받는 눈인사에 법정악의 발길은 전망대 정상에 왔다. 서남동으로 이어지는 오름과 해안,



거린사슴오름에서 보는 법정악과 갯거리오름

수림지대를 지나 한라산 남벽까지 찬찬히 조망하면서 바쁨에 찌들고 여유에 인색했던 자신을 되돌아본다. 서귀포자연휴양림과 법정악이 베푸는 산책·탐방·전망 삼박자에 무뎠었던 감흥들이 되살아난다.

갯거리오름 1100도로에서 조차 오름인 듯 아닌 듯 둥그런 잡나무숲으로 덮여 있는 듯 없는 듯 입구에 있는 갯거리오름을 찾는다. 당연히 탐방길은 없다. 오르미의 흔적은 1100도로 한라산 둘레길과 마주치는 곳 건너편에 있다. 조그만 둔덕을 넘어 얇은 눈을 헤치며 서쪽 능선을 오르면 갯거리오름 정상이다. 등산이라 하기는 그렇고 산책이라 하기는 잡나무와 등성등성 삼나무가 길을 만들어 주지 않았기에 또 그렇구나. 아무도 찾는 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나 보다. 뒤쪽엔 법정악과 자연휴양림이 있고 앞쪽엔 거린사슴오름과 전망대가 있으니 어느 누가 찾겠는가? 게다가 자세히 보면 당신의 속 모습은 1100도로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니. 완만한 산체는 정상도 굽부리도 두루뭉술하다. 분화구 자락도 서귀포자연휴양림에 양보하고 정녕 자신은 있는 듯 없는 듯하다. 개가 꼬리를 끌고 누워있는 모습에서 갯거리라 하며 갯그르오름이라고도 한다. 표고 708.4m, 비고 38m, 원추형 화구다. 갯거리오름이라 불리는 오름이 한림읍 명월리 문수동 쪽에도 있다.



뚜벅이 1100도로 서귀포자연휴양림(240번) → 탐방소

승용차 1100도로 서귀포자연휴양림 주차장

다래오름, 민머루오름

다래오름(중문) 같은 이름을 가진 오름이 3곳이 있다. 월라봉으로 알려진 안덕면 감산리의 다래오름과 애월읍 어음리의 다래오름이 그것이다. 다래낭이 많이 자생하고 있다고 해서 다래오름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다른 뜻으로 고구려어 중 다래[달, 달이]가 상징하는 높다, 고귀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산 정도로 구전되고 있다. 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오래되었고 이렇다 할 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산체이지만 현재로서는 다래낭을 만나는 것은 어렵다. 자락의 조릿대와 굴거리나무를 비롯하여 참나무류와 다른 잡목들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완만한 자락과 남북양방으로 펼쳐진 타원형 정상은 조릿대가 바닥식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 위로 별 특징도 없이 키를 높인 잡나무들은 전망을 시가하고 있다.

표고 983.8m, 비고 64m로서 서향의 말발굽화산체이나 들머리나 탐방 중이나 정상에서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국립공원의 일원으로 특별하게 살아가는 중문다래오름으로 새기면서 1100도로 영실 교차로에서 탐방길 흔적을 지웠다.

민머루오름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전해지는 등산길을 따라가는 민머루오름 탐방이다. 1100도로 영실입구 교차로에서 한라산 버섯연구소를 지나 임도(버섯재배길)·기지국관리길을 따라가면서 순서를 잘 지켜가면서 탐방해야 미아가 되지 않는다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삼거리에서는 왼쪽으로, 세 번째 삼거리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세상일이란게 그렇게 똑 부러지게 되면 좋을 텐데.... 오늘도 역시나다. 며칠 전의 태풍이 길을 엉망으로 만들어 났기에 긴가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러운 민머루오름이 되었다. 봉우리가 없는 민머루오름

이지만 기지국 철탑이 있으니 철탑이라도 보일 것이라 쉽게 생각한 것도 오산이었다. 시간과 힘을 배로 들이고서야 민머루를 만날 수 있었다. 정상적인 탐방로는 9부 능선 동그런 등성이에 있는 기지국관리길이다. 기지국을 돌아 서남쪽으로 난 흔적을 따라가면 한라산 둘레길 돌오름 길을 만나고 녹하지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상은 위쪽에서 쌍둥이용암과 궤를 보호하는 고목나무가 지키고 있다. 쌍둥이 바위에 겨우 올라서면 떨어지는 잎새들 사이로 멀리 삼형제오름을 조금 볼 수 있다.

머르는 머루나 모르등과 같은 맥락으로서 길게 이어지는 등성이나 언덕, 꼭대기 등을 일컫고, 민은 민둥과 뜻이 비슷한 말로서 꾸밈새나 덧 붙은 것이 없는 형태를 말하므로 민머르는 보통의 오름들과 달리 봉우리가 없는 등성정도로 풀이한다. 북쪽에서 볼 때는 오름의 형태를 떠나서 평평하게 숲을 이룬 것처럼 보이며 동남쪽엔 기지국 철탑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고 서쪽으로는 경사가 심한 편이며 깊숙한 계곡을 이루고 있어서 높게 보인다.

표고 882.7m, 비고 82m로서 원추형으로 구분이 되지만 식별에 한계가 따른다. 초입지에서부터 큰 경사가 없이 오가는 과정이 이어지는 데다 정상부 도착점 역시 이렇다 할 경사는 없다. 민머르오름을 두고서 탐방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산책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한 산체다.



두벽이 1100도로 영실입구(240번) → 탐방소
승용차 1100도로 영실입구 교차로 노건



다래오름(중문)과 민머루오름

연계 관광지

서귀포자연휴양림: 숲따라 산책길 따라 쉬면서 여유있는 삶을 향유하고 싶다면 서귀포자연휴양림을 찾아가자. 건강산책로를 따라 법정약전망대에서 서귀포의 아름다움에 가슴깊이 녹슬었던 시적영감을 되살리고, 차량순환로(아스팔트길 3.8km)와 숨바꼭질하며 쉼터를 찾아가는 숲길산책로(아자수매트길 4.6km), 어울림숲길(지압길 건강산책로 + 목책 생태관찰로 2.2km)을 따라 옛날로 돌아가 유아체험도 하고, 목책데크따라 생태를 관찰하면서 탐방과 휴양을 하고 나면 한결 가벼워진 나를 발견한다.



서귀포자연휴양림, 어울림숲길

제주 문화



제주토속음식[된장 냉국]: 보리를 주곡으로 하는 거친 잡곡밥을 먹었던 제주사람들의 밥상에는 국이 빠지지 않았는데 신선한 생선국이 나 넉넉한 된장국이 올랐다.

특히 여름철의 백미는 된장냉국이다. 찬물에 된장 몇 숟갈 풀고 세우리[부추]를 송송 썰어 넣어 만든 냉국국물에 톳이나 물엿[물외]를 넣으면 된장의 구수함과 톳의 바다향/오이의 아삭함이 시원함/청량감을 준다.

제주말 익히기: **잘바로 밤 감서계 푸더지은 하잉아파**

독바로 보고 가십시오. 넘어지면 많이 아프습니다.

명소 들리기

거린사슴전망대: 서귀포 시내와 해안 절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이 아름다운 곳. 고·저기압이 만나는 날씨대로 전통적인 제주의 날씨를 느낄 수 있는 곳 거린사슴전망대를 소개한다. 서귀포 시내로 들어가기 전에 맛보기 관광을 보여주는 전망대를 앞에 두고 뒤로 주차장과 매점, 화장실이 천백도로를 넘어오면서 마음 졸였던 관광객의 심신을 쉬어가게 한다.



홍가시나무길: 천백도로와 산록남로가 만나는 구 탐라대학교 사거리에서 폐교된 탐라대학교가는 길에 또 다른 제주의 정열이 피어나는 곳이 있다. 4~5월에만 잠시 볼 수 있는 홍가시나무 길이다.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하는 초입에 붉게 물든 홍가시나무와 함께 기념·인생 사진 한 장 찍어 가져가세요. 볼 때마다 좋은 그때가 회상될 테니까요.

[홍가시나무] 정원이나 화단에 심어 기르는 장미과에 딸린 늘 푸른 키 작은 나무로 잎이 새로 나올 때와 단풍이 들 때 붉은색을 띠므로 홍가시나무라고 한다.

두서없이 시작한 방기인의 제주탐방이 해를 넘겼지만 의욕만 앞서 뭐 하나 남는 것이 없는 밍밍한 탐방이 된 것 같아 기대를 가지고 지면을 할애해 주신 독자들에게 미안함만 쌓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주올레를 걸으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성찰해 봅니다. 🌿